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

메세나(MECENAT)란 기업이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가 설립되어 현재 220여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상호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업과 문화예술 부문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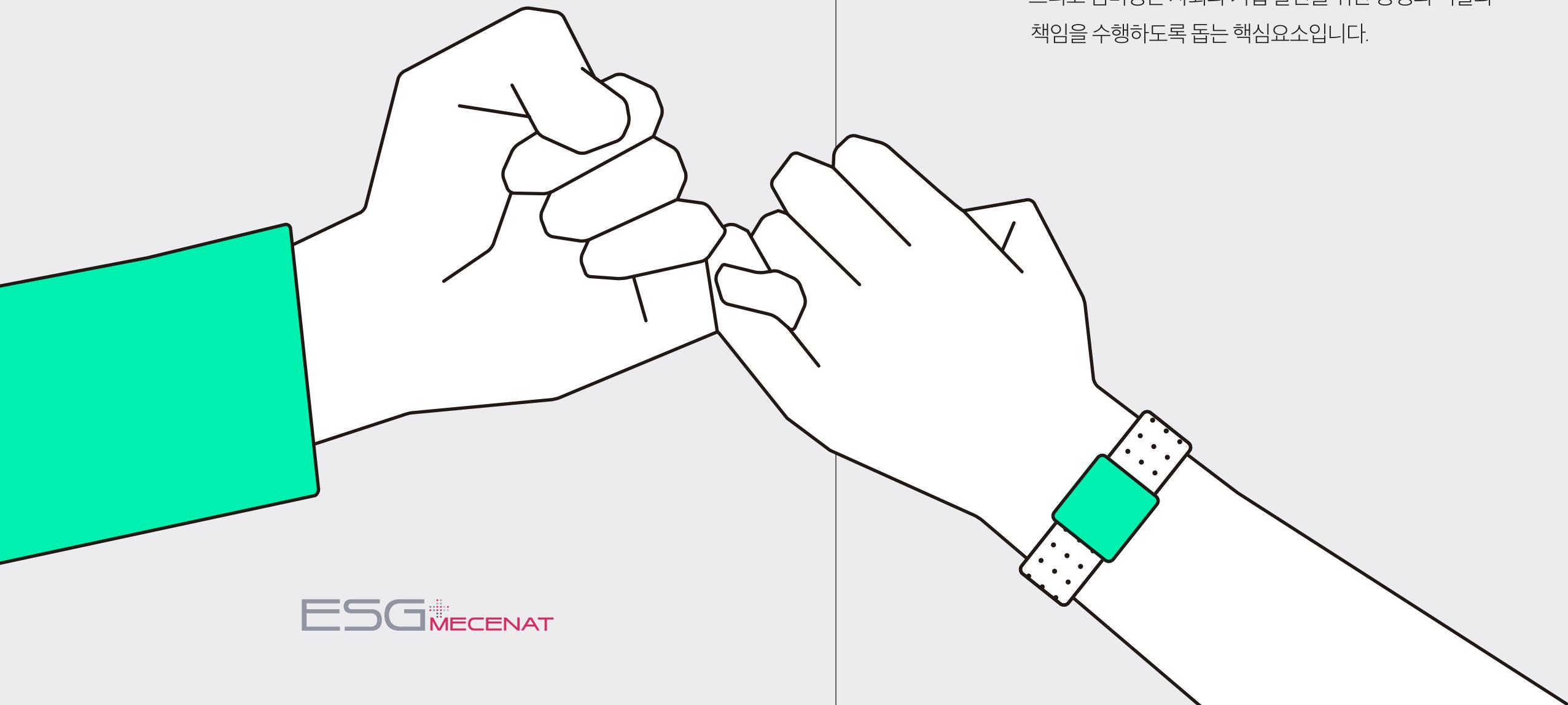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SG 실천을 위한
메세나 사용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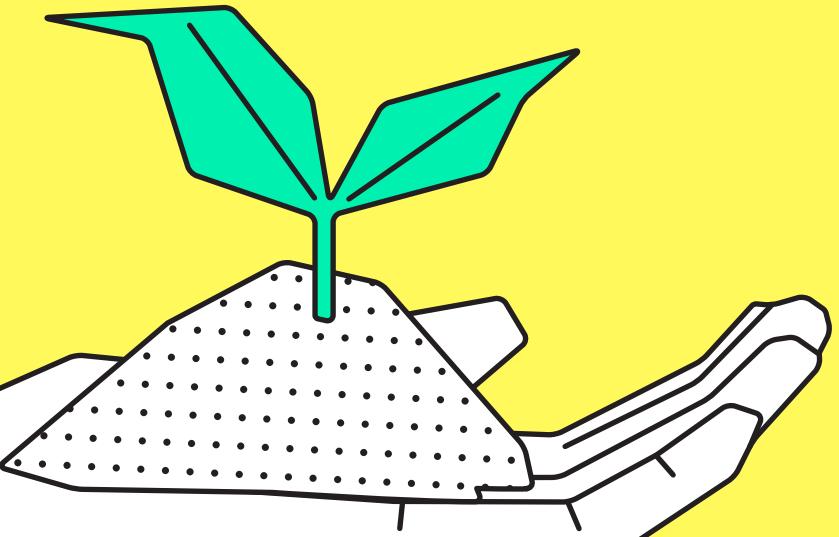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예술을 통한 선진적인 ESG경영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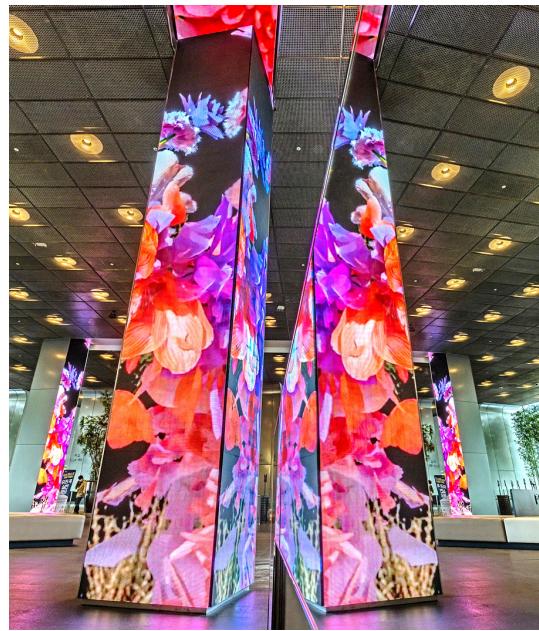


비재무적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투자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경제환경에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업 평가지표가 되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이 같은 사회적·윤리적 가치는 기업의 예술지원 활동인 메세나 Mecenat와도 매우 밀접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ESG + 메세나>는 예술계뿐만 아니라 기업 임직원,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 포용 부문 등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심미성은 사회와 기업 발전을 위한 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돋는 핵심요소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움직임 속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술은 그 자체로 환경재난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은 환경재난, 기후변화,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술 본연의 인지적 가치와 문제해결을 위한 예술행동은 우리 공동체의 인식을 고양하고 기업의 친환경 실현 노력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Environment



SK 텔레콤 SK텔레콤은 꾸준한 문화예술 지원 및 활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 사옥 미디어월에 친환경 기술의 비전을 담은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ESG경영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주제로 전시한 미디어 아트 '동행'은 오염된 자연이 SK의 친환경 기술을 통해 재생되는 과정과 넷제로(NetZero)를 향한 SK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옥에 전시한 미디어 아트는 'V컬러링' 콘텐츠로도 제공되어 고객들이 소장 및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생한 작품 다운로드 수익은 전액 작가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임직원과 고객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예술을 통한 <ESG+메세나>의 철학을 알리며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술은 추상적인 ESG 개념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SK하이닉스는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담아
공모전을 열고 청년 예술가 십여 명을 선정해 사회적
기업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림의 시각적인 효과는
환경문제에 대해 설득력을 높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정서적 접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posco
포스코O&M 포스코O&M은 포항 생활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고철을
수거하여 '에코나이프'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셜벤처기업 자이너(ZAINER)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고, 일반적인 가공과 달리 단조작업부터
연마, 담금질까지 장인의 기술을 접목시켜 대장장이

전통문화 계승과 소셜벤처 지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에코나이프' 판매 수익금은 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의
예술 활동을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포스코O&M은 그룹사 포스코의 슬로건, 'Green With
POSCO(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에 따라 친환경의
가치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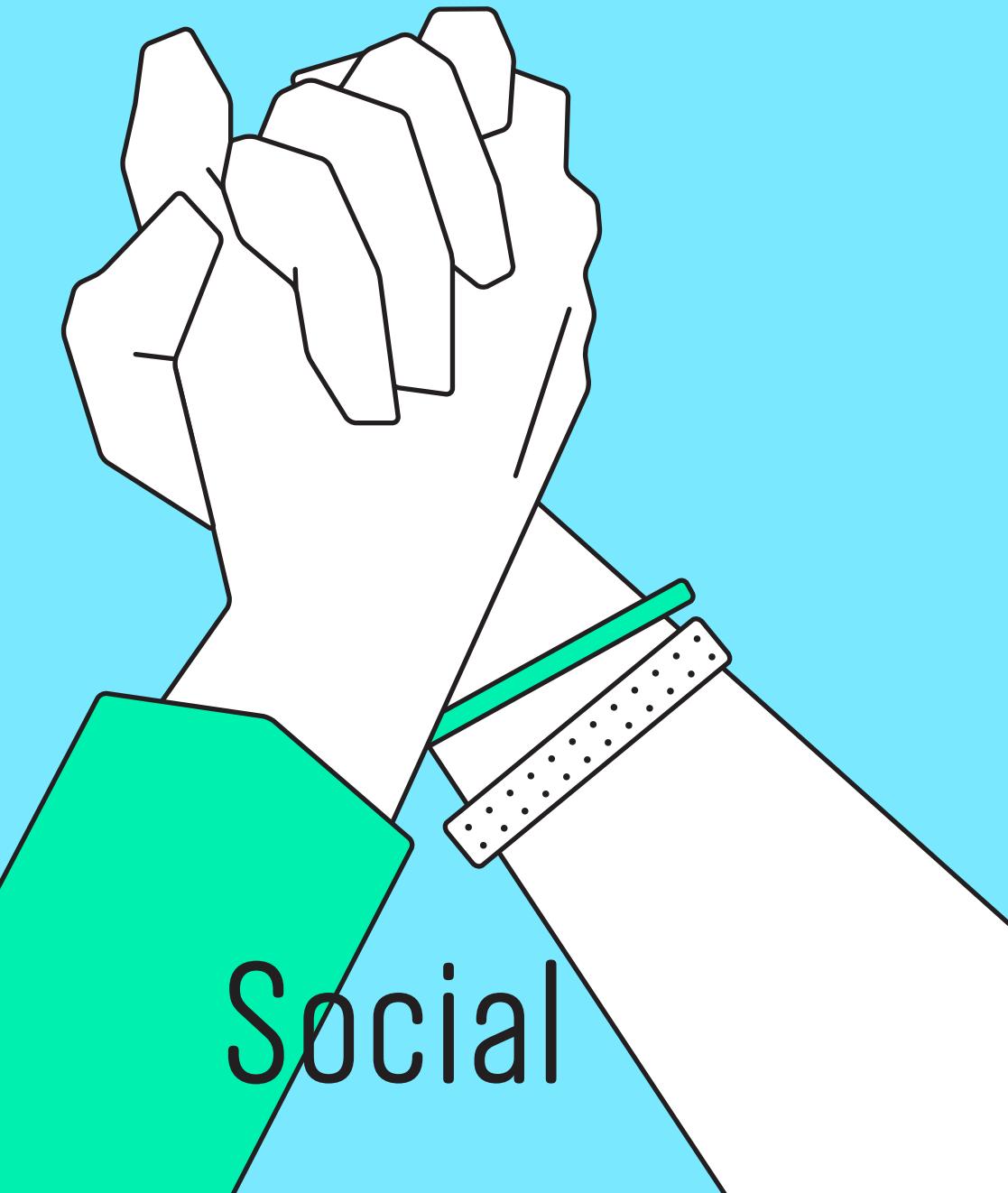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MZ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ESG 캠페인 '드림 그린 타운(Dream
Green Town)'을 선보였습니다. '드림 그린 타운'은
자사의 미술영재 장학사업 '드림그림(Dream Gream)'의
장학생들이 기획한 '모바일 유형 분석 게임'으로,
일상 속 환경보호 방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에코 캐릭터'를 발견하고 해당 캐릭터가
제시하는 다양한 환경 보호 방법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 시즌 2'의
삽화 작가였던 일러스트레이터 '127(일이칠)'과 협업해
ESG에 대한 메시지를 직관적·감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건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나눔, 포용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예술은 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메세나 기구인 AFA American For the Arts 는 예술이 창의성과 혁신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를 통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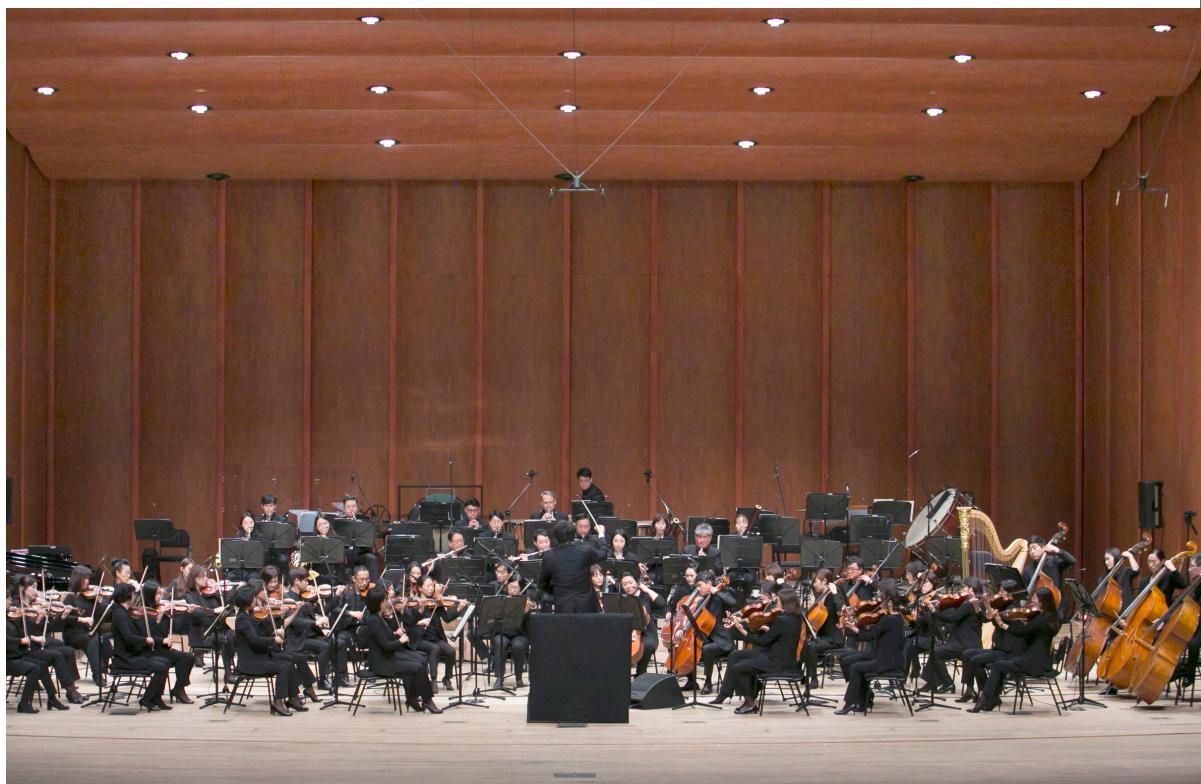
Social



동서식품

동서식품은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08년 창립 40주년을 계기로 ‘동서커피클래식’과 ‘맥심 사랑의 향기’를 시작하여 매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서커피클래식’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클래식 음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사회 시민들이 부담 없이 클래식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만석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맥심 사랑의 향기’는 어린이 오케스트라에 문화자산을 후원하는 활동으로 음악 꿈나무들에게 악기를 기증하고 음악가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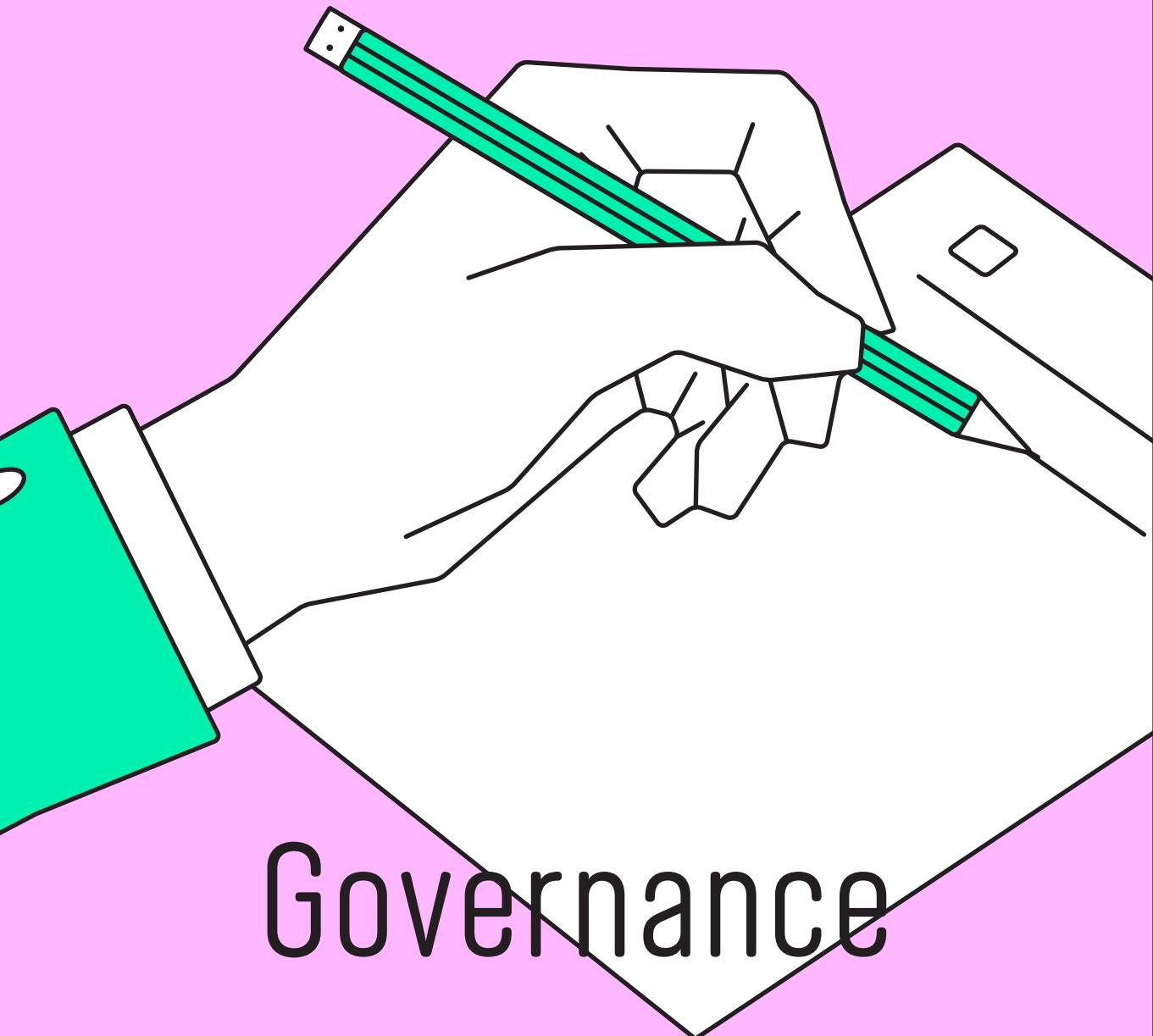
한화생명

예술은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위기에 노출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치유시켜 주는 소통 수단입니다. 욕설, 위협, 악의적인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는 콜센터 임직원들은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한화생명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칼림바, 캘리크라피, 발레, 민화, 사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진 고객 응대 컨설턴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적 행복감이 제고된 것은 물론, 고객응대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주주의 이익 증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내포한 예술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예술로 쌓은 차별화된 신뢰는 ESG 시대에 새로운 공급망 협력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코스닥 등록사인(주)HK의 대표는 2012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국내 철강 대기업 P사의 기술 담당 고위 관계자로, (주)HK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HK는 초정밀 레이저 가공기 설계·제작업체로 독일, 일본 등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이전에는 P사와 교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이러한 기회의 바탕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주)HK는 최고경영진부터 직원까지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문화기업으로, 연주단체인 행복나무플러스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삶과 나눔 콘서트'를 자선음악회로 개최하고, 수익금은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의 장학금과 생활 지원에 사용합니다.

또한 후원 중인 그룹홈 시설 출신의 청년들에게 자사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주)HK의 문화나눔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때마침 철강재 가공 기술 개선을 위해 국내 파트너를 물색하던 P사의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이 정도로 진정성 있는 문화공헌 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 체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양사의 관계는 2호기, 3호기, 연구소 장비 구매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후(주)HK의 국내 및 해외영업 평판 제고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주)HK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ESG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1 ESG 실현 노력에 대한 공감 확대

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창의성과 심미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존 추구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높입니다. 메세나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감성나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ESG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정서적 호의와 지지를 얻도록 돕습니다.

2 예술을 통한 공동체의 인식 고취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 그 자체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술 본연의 인지적 가치와 예술행동은 우리 공동체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친환경 실현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3 이해관계자 소통과 나눔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문화적 소통을 가능케 하며, 문화나눔을 통해 소득·세대·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비차별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과 삶의 균형 보장

문화예술은 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여가친화적 문화가 스며들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메세나기구인 AFA American For the Arts는 예술이 노동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근로자 인권 증진 및 만족도 영향

포춘이 선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는 직원 응답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문화예술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기업신뢰도, 존중, 자부심, 동료애 등에 관한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에서 직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6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구리 제련소의 폐기물로 인해 황폐화 되었던 일본의 나오시마섬은 베네세그룹의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관을 갖춘 문화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떠났던 어촌 마을은 지역 재건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메세나 활동은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과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시민 에너지 독려

ESG 경영환경에서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은 대단히 큽니다. 기업의 ESG 활동에 예술의 메시지 생산력과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환경·사회 등급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시민 에너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의 파이를 키워 미래의 수익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8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증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일과 같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정신활동이며, 예술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개인의 윤리성, 관계 건전성과도 연관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로 가꾸는 기업문화는 개개인의 윤리적 성숙을 통해 평판 위험, 인적 위험 등의 비재무 위험에도 대응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9 공급망 협력 기회 창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내포한 예술 컨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메세나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쌓은 차별화된 신뢰는 ESG 시대에 새로운 공급망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0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책임 이행

밀레니얼 세대는 기업의 사회 기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에게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활동은 미래 자산인 4C Creative,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를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 수단입니다.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은 국회, 경제계, 과학계, 사회 각 계 대표기관으로 구성된 ESG 혁신 플랫폼입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 포럼에 한국메세나협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은 기업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각 문화, 인종, 종교, 세대, 지역간 교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렇듯, 예술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ESG경영은
윤리적 선언 이상의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경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의 문화적 재생과 사회구성원과의
소통과 나눔, 주주 이익 증대를 도모하게 합니다.

메세나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ESG경영에 유용한
필수 전략입니다.

